
The Value and Meaning of Poop in Ki Philosophy*

Kyobi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several thousand years ago in the East asia, ki has been used as a concept to explain the change in all things, encompassing nature and society, matter and spirit. This thesis is a study to prepare a humanistic theoretical basis for the circulation and value establishment of poop in Science Walden's 'feces Standard Money' research project. In particular, this thesis discusses the value and meaning of poop, focusing on the philosophy of Hwadam Seo Gyeong-deok. The first thought that the 'feces Standard Money' project can be obtained from the Ki philosophy is cyclical thinking. In particular, Zhuang-tzu, Jang-jae, and Seo Hwa-dam explained the change of all things as gathered and scattered, all beings could not escape from the great cycle. Second, the point of preview of Ki philosophy is the perspective of equality in all things. By relativizing everything, Zhuang-tzu drew on the idea that all things are equal. Jang-jae also developed the idea that all things are equal in that all things are made of qi and the cycle repeats the cycle through the extraction of qi. And Seo Kyung-duk expanded such thinking and moved on to practice in reality. Third, Ki philosophy enables a change in the perception that poop is dirty, and based on this, draws out the unity of all things. The idea of Zhuang-tzu and Jang-jae that all things are one, and the idea that the order of Qi is reduced to the order of numbers and the order of numbers is reduced to the order of sound, and is the story of Seo Kyung-deok, who dreamed of a world of dialogue and harmony in harmony with nature. All thoughts make such a transformation of perception possible. If the 'feces Standard Money' project aims to solve problems such as income inequality, human alienation, generational conflict, and educational gap according to grades and degrees in modern society, then based on this thinking, the separation of human to human and human to nature is It should be possible to change to a worldview of sympathy and communication, which is not a struggle, but a feeling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Key words : Ki philosophy, poop, dung (糞), dung and pee (屎尿), circulation theory, equality of all things, unity of all thing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RF-2015R1A5A7037825).

Received November 28, 2021 **Revised** Decem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Kyobi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kkb5142@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기철학에서 본 똥의 가치와 의미*

김교빈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요 약

기(氣)는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자연과 사회,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며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이 논문은 사이언스 월든의 ‘똥본위화폐’ 연구 프로젝트에서 똥의 순환과 가치 정립에 대한 인문학적 이론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이 논문은 화담 서경덕의 기철학을 중심으로 똥의 가치와 의미를 논하고 있다. ‘똥본위화폐’ 프로젝트가 기철학에서 얻을 수 있는 사고는 첫째 순환적 사고이다. 특히 장자, 장횡거, 서화담은 만물의 변화를 기의 취산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존재가 거대한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로 기철학이 주는 시사점은 만물 평등의 관점이다. 장자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킴으로써 만물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끌어냈다. 장횡거 또한 만물이 기로 이루어져 있고 기의 취산을 통해 순환 과정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만물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서경덕은 그런 사고를 확장하여 현실에서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갔다. 셋째로 기철학은 똥을 더럽다고 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능케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만물일체론을 끌어낸다. 만물이 하나라는 장자와 장횡거의 생각, 그리고 기의 질서가 수의 질서로 환원되며 수의 질서는 소리의 질서로 환원된다고 보고 대자연의 하모니로 어우러지는 대화해(太和諧)의 세상을 꿈꾼 서경덕의 생각이 모두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똥본위화폐’ 프로젝트가 현대사회의 소득불균형과 인간 소외, 세대 갈등, 학점과 학위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 같은 사고를 기반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분리와 투쟁이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통(感通)의 세계관으로 바뀌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기철학, 똥, 분(糞), 시뇨(屎尿), 순환론, 만물평등, 만물일체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R1A5A7037825).

I. 氣, 氣, 유기체적 세계관

氣는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자연과 사회,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며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철학에서는 만물의 발생에서부터 자연과 인간과 사회까지의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틀이었고, 의학에서는 인체의 생리와 병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근거였다. 또한 천문학에서는 氣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해와 달과 별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았고, 지리학에서는 산에서 시작하여 평지로 이어지는 모든 지세(地勢)가 기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통해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만나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는 중국의 위진 시기와 한국의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문기론(文氣論)을 가지고 문학작품의 우열은 작자의 기품이 드러난 결과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서예나 회화에서는 남북조 시기 이론가 사혁(謝赫)이 화론(畫論)의 여섯 가지 원칙 가운데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첫 번째로 꼽은 것처럼 붓을 움직이는 근본 틀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양의 학문은 대부분 ‘氣’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氣’ 개념에서 만난다.

氣는 사실 동양적 사유가 담긴 고유한 개념이다. 서양 연구자들은 과거에 氣에 대한 번역어로 ‘energy’, ‘air’, ‘breath’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Chi’ 또는 ‘Ki’를 사용한다. ‘Chi’는 氣의 중국 발음을 그대로 적은 것이며 ‘Ki’는 한국과 일본 발음을 적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양의 기를 대체할 서양 단어가 없음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기’는 동양만의 독특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서양에 氣를 대체할 개념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氣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물론 서양에 유기체적 세계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기체적 세계관이 동양의 주류 세계관이었던 것과 달리 서양은 기계론적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신과 인간을 구분하고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대표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데카르트-뉴턴적 세계관이라고도 불리며 자연을 수많은 요소들로 나누고 현상이나 현상의 변화 원인을 그 요소들에서 찾는 환원론적 경향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인과율을 따지는 결정론적 경향을 보이며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현상을 분석할 때에도 사물을 정지된 상태에서 국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유기체적 세계관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 즉 사물들 사이의 내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에 주목한다. 그래서 사물을 독립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 연관해서 보는 관계론적 사고나 전체를 조망하는 전체론적 사고가 주류를 이룬다. 그 결과 서로의 영향 관계를 따지는 상관적 사고와 더불어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 관계로 보면서도 동시에 서로 보완하고 돕는 관계로 보는 상보적(相補的) 사고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정지

된 상태가 아니라 끝없는 변화의 실상을 보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구의 또 다른 대상인 ‘똥’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자문화권에서 똥은 크게 두 가지 글자로 표기된다. 그 중 하나는 시(屎)이고 다른 하나는 분(糞)으로 《說文解字》에서는 “屎는 糞이다”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 먼저 시(屎)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시(屎) 대신 시(矢)가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左傳》〈文公 18年〉 “말똥 속에 묻었다(埋之馬矢之中)”는 표현이 그러하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이르면 《莊子》〈知北遊〉에서 보듯 ‘도(道)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동곽자의 물음에 장자는 “똥오줌 속에 있다(在屎尿)”고 답하였다. 시(屎)는 본래 주검을 뜻하는 시(尸)와 쌀 미(米)를 합친 것이다. 갑골문 연구에 따르면 시(尸)는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매장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래 주검 또는 시체를 뜻한다. 제사를 지낼 때 신위(神位) 대신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시동(尸童)이라 부른 것도 그런 의미였다.

하지만 그 뒤 시(尸)는 사람이 머리(口)를 들고 등(ノ)을 세운 모습을 형상하여 전체적으로는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않고 엉거주춤 앉아 용변 보는 자세로 쭈그려 앉은 사람 모습이 되었고 그 아래 쌀 미(米)와 물 수(水)를 붙여 똥과 오줌을 뜻하는 글자로 쓴 것이다. 특히 시(屎)와 뇨(尿)에는 모두 곡식을 먹어서 똥으로 나오고 물을 먹어서 오줌으로 나온다는 순환론적 사고가 담겨있다.

두 번째로 분(糞)을 보자. 분(糞)에 대해 《說文解字》에서는 “분은 버려 없애는 것”(糞 棄除也)이라고 풀었다. 그런 점에서 초기의 분(糞)은 ‘더러운 것, 없애 버려야 할 것’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다. ‘삼태기를(田) 두 손으로 받쳐 들고 (共) 곡식이 변해서 된 쓰레기(米), 즉 똥을 치우는 모습’으로 글자의 자형을 설명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며 《論語》〈公治長〉에서 “썩은 흙으로 만든 담장은 흙 손질 할 수가 없다(糞土之牆 不可朽也)”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춘추시대부터 주산업인 농경에 소, 철기 농구, 관개(灌溉)가 쓰이기 시작한 것과 아울러 비료와 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쌀 미(米)와 다를 이(異) 자가 결합된 모습 그대로 곡식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것이 ‘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분(糞)’에도 시(屎)와 뇨(尿)처럼 순환론적 사고가 담기게 되었다.

본고는 사이언스 월든의 똥본위화폐 연구 프로젝트에서 똥의 순환과 가치 정립에 대한 인문학적 이론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 가운데서도 논자는 기철학의 관점에서 자연의 거대한 순환 가운데 하나인 똥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논할 것이며 특히 논자의 관점에서 기철학의 가장 완성된 단계라고 판단되는 화담 서경덕의 기철학을 중심으로 똥의 가치와 의미를 논하려 한다.

II.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기에 대한 바른 생각

현대인에게 기(氣)는 매우 낯선 개념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기(氣)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을 못 한다. 더구나 조선시대 성리학의 주요 개념이었던 ‘이기론’에 대해서는 고리타분하고 낡은 개념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서세동점 이후 동양의 문물만이 아니라 사유체계까지도 서구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기(氣)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다만 생각을 안 해 봤을 뿐이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살펴보면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언어는 약속된 개념이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언어 속에 담긴 개념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기(氣)에 담긴 사유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만물은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또한 기라는 사실이다. 사람에게도 기가 들어 있고 자연 속에도 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경우 혈기(血氣)를 말하고 자연에 대해서는 기상(氣象) 또는 일기(日氣)를 말한다. 심지어 만물이 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만물 가운데 가장 큰 것에 큰 대(大)자를 붙여 대기(大氣)라고 하며,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이 기이기 때문에 빈듯하지만 기로 가득 차 있다는 뜻에서 공기(空氣)라는 말도 쓰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보다 농도가 진한 연기(煙氣)도 있고, 액화상태의 증기(蒸氣)도 있다.

그렇다면 만물은 동일한 기로 이루어진 동일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동기(同氣)라고 부른다. 그 말 속에는 같은 부모로부터 같은 기를 받아 태어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형제자매라고 해도 모두 같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의 차이를 기질(氣質)의 차이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는 만물의 동질성과 함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그렇다면 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기를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기(寒氣), 열기(熱氣), 냉기(冷氣), 온기(溫氣)가 느껴진다고 하며 심지어는 생기(生氣)와 살기(殺氣)까지도 느낀다고 한다. 특히 기를 느낀다고 보는 단어의 압권은 감기(感氣)이다. 감기는 글자 그대로 기를 느꼈다는 표현인데, 내 몸도 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 밖에도 기로 가득 차 있어서 나와 내 밖의 기가 다른 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오싹해 지면서 내 밖의 기를 다른 것처럼 느낀 현상이 감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력의 상징이며 그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생명력을 잃는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잘 표현한 말이 ‘기가 막혀 죽겠다’이다. 이 말 속에는 기는 막힘없는 존재이며 기가 막히는 순간 죽음일 뿐이라는 생각이 잘 담겨 있다. 그 밖에 기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기절(氣絶), 기가 몸 안에서 도는 힘을 뜻하는 기운(氣運), 기의 형세 또는 세력을 뜻하는 기세(氣勢)가 모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가 약하다’, ‘기가 꺾였다’, ‘기가 살았다’와 같은 표현도 모

두 그러하다.

그렇다면 기의 끝없는 움직임에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 기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현상을 기철학자들은 ‘기의 취산(聚散)’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담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기합(氣合), 인기(人氣) 등이 있다. 기합이란 군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서 군기(軍氣)가 빠진 또는 흩어진 병사들에게 기를 모아주는 행위이다. 즉 군기가 빠진 병사들에게 자극을 통해 기를 모으게 해 주면 마음가짐과 동작이 모두 기합을 받기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인기(人氣)라는 단어는 또 어떤가? 우리는 가수나 탤런트를 가리켜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 인기란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관심을 의미하며 그 경우 관심을 보낸다는 행위는 곧 기를 보내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면 인기가 올라가고 관심이 적어지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는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을 뜻한다. 사람의 경우 우리 모두는 낮 동안 기를 쓰며 살아간다. 심지어 행동만이 아니라 말도 기이기에 말투를 어기(語氣)라고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를 쓰고 하루를 살다가 저녁 무렵이 되면 기진맥진(氣盡脈盡)해 진다. 그렇게 되면 써 버린 기를 다시 보충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먹는 일과 쉬는 일이다. 옛 사람들이 음식을 곡기(穀氣)라고 한 것은 음식을 통해 우리가 써 버린 기를 다시 채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맹자는 밤 동안에 기를 보존하라는 뜻에서 ‘존야기(存夜氣)’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쉬면 다시 활기(活氣)와 기력(氣力)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보면 기는 마치 물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지혜 같은 관념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분(氣分)이 어떤지 묻는다면 이는 몸속에 퍼져있는 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기가 고루 나뉘어 있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다면 기가 어딘가 뭉쳐 있는 것이 된다. 그 밖에 오만한 기운을 뜻하는 오기(傲氣), 성낸 감정인 노기(怒氣)나 분기(憤氣) 등도 모두 감정 작용을 기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 마음이 불편한 것을 심기(心氣)가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지혜를 뜻하는 총기(聰氣)도 있다.

Ⅲ. 기 개념의 발생과 전개

‘기’가 처음 모습을 보인 것은 중국 고대 국가인 은(殷)나라에서였다. 은나라의 갑골문과 주(周)나라 금문(金文)에 보이는 상형(象形)이 그것이다.¹⁾ 설문해자에서는 이런 모습을 구름이 피

1) 장립문주편, 『기의 철학』 상권, 김교빈 외 옮김, 1992, 예문지, 63쪽

어오르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구름이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대자연이 호흡한다고 보면서 나온 글자일 것이라 생각된다.²⁾

기 개념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최초의 문헌은 『좌전(左傳)』이다. 『좌전』에서는 ‘하늘에 여섯 종류의 기가 있으니 음, 양, 바람, 비, 어둠, 밝음을 말한다.’고 하였다.³⁾ 나중에 음양이 바람, 비, 어둠, 밝음의 나머지 네 개념과 달리 상대적인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된 것을 생각한다면 이 표현은 여섯 요소를 나열한 매우 낮은 단계의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좌전은 이 글 뒤에 6기의 변화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아울러 6기가 지나치면 어떠한 질병이 생기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고대인들이 자연 변화나 질병 같은 복잡한 현상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뒤로도 ‘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외연이 넓어지고 내포가 깊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도 『주역(周易)』에서는 모든 변화를 음과 양의 끝없는 순환 변화로 이해하였고⁴⁾, 『노자』도 만물을 유무(有無)·미추(美醜)·난이(難易)·장단(長短)·고하(高下)·허실(虛實)·강약(強弱)·위무위(爲無爲)·욕무욕(欲無欲)·자웅(雌雄)·손익(損益) 등으로 상대화시킴으로써 음양처럼 대립하는 두 개념이 만물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맹자는 ‘도덕적 용기’를 뜻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언급함으로써 기를 존재론의 영역에서 가치론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중국 고대철학에서 기철학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은 장자였다. 모든 만물이 기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물의 통일성이 기에 있다고 보았으며, 세상의 모든 변화를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기의 취산(聚散)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기가 모인 것이다. 모이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죽는다. 삶과 죽음이 같은 것임을 안다면 내가 또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그러므로 만물은 한 가지이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새롭고 기이한 것이라고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냄새나고 썩었다고 하지만 냄새나고 썩은 것이 다시 바뀌어 새롭고 기이한 것이 되고 새롭고 기이한 것이 다시 바뀌어 냄새나고 썩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천하를 통틀어 하나의 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니 성인(聖人)은 그런 까닭에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⁵⁾

2) 『說文解字』, 제1 上, ‘雲氣也, 象形.’ 『說文解字部首訂』 ‘氣之形與雲同, 但析言之則, 山川初出者爲氣, 升於天者爲雲, 合觀之則, 氣乃雲之散蔓, 雲乃氣之濃斂, 說解故以雲氣釋之, 其形疊三爲文者, 氣之上出, 層累而升, 因從積畫而象之’

3) 『좌전(左傳)』 昭公 元年 ‘天有六氣, ……六氣曰陰陽風雨晦明’

4) 『周易』, 「繫辭 上」, ‘一陰一陽之謂道’

5) 『장자』, 「知北遊」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若死生爲徒, 吾又何患! 故萬物一也, 是其所美者爲神奇, 其所惡者爲臭腐, 臭腐復化爲神奇, 神奇復化爲臭腐. 故曰.. 通天下一氣耳. 聖人故貴一.’

이런 입장에서 장자는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 꿈과 생시,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로 보았다. 그래서 부인이 죽었을 때 부인의 시체에 걸터앉아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했던 것이고 기가 모여 태어났다가 흩어져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다.⁶⁾ 아울러 道를 변화 자체로 보았던 장자는 만물이 모두 변한다는 입장에서 道는 어디든 없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 똥오줌에도 道가 있다고 했던 것이다.

전국시대 말에 이르면 氣 개념은 『관자』를 통해 의학으로도 범주가 확산된다. 『관자』는 「추언(樞言)」 편에서 ‘기가 있으면 생겨나고 기가 없으면 죽는다. 생겨나는 것은 기 때문이다.’⁷⁾라고 하여 ‘기’를 만물 생성 소멸의 근거로 삼았고, 특히 「수지(水地)」 편을 통해 땅위에 물이 흘러가듯이 사람 몸에도 무엇인가 흐르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확립함으로써 전통의학의 경락이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더구나 기 개념은 전국시대와 한나라 초기 음양, 오행 이론들과 결합하면서 매우 풍부한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본래 기, 음양, 오행은 모두 각기 다른 사유방식에서 발생한 개념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는 대자연이 호흡한다는 생각에서 구름 피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음양은 햇빛 비치는 양지와 그늘진 음지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하여 서로 모순 대립하는 사물의 두 측면을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오행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다섯 가지 물질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과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다섯 별 관측에서 왔다는 주장,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방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 등이 있지만 단순한 다섯 요소가 아니라 다섯 가지 기능과 속성의 의미로 전개되면서 상생 상극의 관계론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기 개념을 매개로 음양설과 오행설이 만나서 추상화 단계가 한층 높아졌고 그 결과 음양오행설은 사물과 사물을 관계 짓는 인식 틀로 자리 잡으면서 현상이나 사태를 해석하는 이론이 되었다. 특히 한나라 때 동중서(董仲舒)와 『회남자(淮南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론 구조를 확립한 전통의학에서 음양오행론은 병리와 그에 대응한 치료를 위한 조화와 조절의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기철학이 한 단계 발전한 상태로 자리매김한 것은 송대 성리학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초기 기철학의 확립에 전국시대 장자가 큰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송나라의 장횡거였다. 장횡거는 다른 성리학자들이 만물의 본질로 태극을 내세운 것과 달리 태허(太虛)를 내세우면서 ‘태허의 형체 없음이 기의 본 모습이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변화의 겉모습일 뿐.’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허의 텅 빈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氣로

6) 같은 책, 「至樂」 ‘察其始而本无生, 非徒无生也而本无形, 非徒无形也而本无氣. 雜乎芒芴之間,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是相與爲春秋冬夏四時行也.’

7) 『관자』, 「樞言」 ‘有氣則生, 無氣則死, 生者以其氣.’

8) 「正蒙」 ‘太虛無形 氣之本體 其聚其散 變化之客形爾’

가득 차 있는 것이라서 ‘허(虛)니 공(空)이니 하는 것이 곧 기(氣)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⁹⁾고 하였다. 이러한 장횡거의 언급은 우주 공간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천문학의 관점을 토대로 허(虛)를 말하는 노장철학이나 공(空)을 말하는 불교를 비판한 것이다.

또한 장횡거는 장자의 사고를 이어받아 태허 - 만물 - 태허의 순환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다.

태허에는 기가 없을 수 없고 기는 모여서 만물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만물은 흩어져서 태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모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¹⁰⁾

이 말에 따르면 태허를 가득채운 기가 모여 만물이 되고 그 만물이 흩어져 다시 태허로 돌아가며 그 과정은 ‘기가 없을 수 없고(不能無)’, ‘기는 모이거나 흩어지지 않을 수 없고(不能不)’, 이런 과정이 모두 ‘어쩔 수 없는(不得已)’ 필연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태허를 가득채운 기나 모여서 만물이 된 기가 모두 한가지이므로 모여서 생명체를 이룬 내 몸의 기와 죽음에 이르러 흩어져 태허로 돌아간 기가 같다는 생각은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으며 아울러 태허의 기가 모여 만들어진 만물 각각도 모두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만들어 냈다. 이런 생각들이 다음 언급에 잘 담겨 있다.

‘모여도 내 몸이고 흩어져도 내 몸이니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안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성(性)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¹¹⁾

‘모든 사람이 내 동포이고 만물이 내 벗이다.’¹²⁾

‘살아서는 내 할 일을 따르고 죽어서는 편안하다.’¹³⁾

이러한 장횡거의 생각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理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성리학에서 기는 리보다 한 차원 낮은 개념으로 사물이 사라지면 그 사물을 이루고 있던 기도 없어진다고 봄으로써,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겨난 존재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구성한 존재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는 특수 존재이며, 도덕적으로는

9) 같은 책 ‘知虛空即氣則無無’

10) 같은 책 ‘太虛不能無氣 氣不能不聚而爲萬物 萬物不能不散而爲太虛 循是出入 是皆不得已而然也’

11) 같은 책, ‘聚亦吾體 散亦吾體 知死之不已者 可與言性矣’

12) 같은 책, ‘民吾同胞 物吾與也’

13) 같은 책, ‘存吾順事 沒吾寧也’

악의 근원이 됨으로써, 理 개념의 하위개념이 되고 말았다.

IV. 서화담의 기철학과 화담학파

앞에서 본 장자와 장횡거의 사상을 받아들여 독창적인 학설을 통해 한국 기철학을 정립한 사람이 화담 서경덕이다. 그의 철학은 나뭇 캐러 나갔다가 하루 종일 종달새의 움직임만을 보느라고 빈 바구니로 돌아왔다는 일화처럼 철저히 가치론적 접근이 아니라 존재론적 접근이었다. 당시 개념으로는 성리학자이겠지만 오늘날 개념으로는 물리학자에 가깝다. 서경덕은 죽음을 앞두고 심정이 어떤지를 묻는 제자에게 죽고 사는 이치를 안지가 오래여서 마음 편하다고 답했던 것처럼¹⁴⁾ 서경덕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 철학이 바로 그의 기에 대한 이해였던 것이다.

서경덕은 ‘태허가 곧 기(太虛卽氣)’라고 보았던 장횡거와 달리 ‘태허는 빈 듯하면서도 비어있지 않으니 그 빈 듯한 것이 곧 기’¹⁵⁾라는 입장에서 ‘허(虛)가 곧 기(虛卽氣)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뻘이 없는 것을 태허라고 하고 시작이 없는 것을 기라고 한다’¹⁶⁾고 구분한 데서 드러나듯이 태허와 기가 모두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태허는 공간 개념이고 기는 시간 개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횡거가 태허를 기라고 한 것과 달리 태허라는 우주 공간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텅 빈 상태를 기라고 했다.

서경덕은 맑아서 아무런 형체도 없는 기가 태허를 가득 채운 상태를 선천(先天)이라고 하였고¹⁷⁾, 그 상태의 기는 근원으로서의 기이기 때문에 음양 동정으로 드러나는 현상 세계인 후천(後天)의 기와 구분하여 일기(一氣)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상 이전의 선천과 현상 세계인 후천이 모두 氣 하나로 일관되기 때문에 유기론(唯氣論)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는 시간 제약이 없는 존재로서 어딘가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닌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존재이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의 만물의 변화는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취산(聚散)일 뿐이다. 그런 입장에서 서경덕은 ‘빈듯하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이 기의 본체이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기의 작용이다’¹⁸⁾라고 하였고, ‘죽음과 삶, 사람과 귀신은 모두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일 뿐이니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있으되 있다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없다’¹⁹⁾고 하였다. 이처럼 기의 취산으로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기

14) 서경덕, 『화담집』, 「연보」, ‘先生意思如何 死生之理 知之久矣 意思安矣’

15) 같은 책, 「太虛說」, ‘太虛 虛而不虛 虛卽氣’

16) 같은 책, 「理氣說」, ‘無外曰太虛 無始者曰氣’

17) 같은 책, 「原理氣」, ‘太虛 湛然無形 號之曰先天’

18) 같은 책, 「太虛說」, ‘虛靜卽氣之體, 聚散其用也’

19) 같은 책, 「鬼神死生說」, ‘死生人鬼只是氣之聚散而已, 有聚散而無有無’

의 영원성을 인정한 것은 장자와 장횡거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취산의 원리는 무엇인가? 서경덕은 그 원리를 기자이(機自爾)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기자이’는 서경덕이 만든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뒤에 율곡 이이가 이어받아 사용한 개념이며,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드러나는 시간적 계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바람 불 때 되면 바람 불고, 비 올 때 되면 비 오고, 꽃 필 때 되면 꽃 피고, 배고플 때 되면 배고파 오는 것과 같은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순간순간을 통해 시간적 제약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변화 자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기의 존재 양식인 셈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서경덕은 ‘갑자기 뛰어 오르고 문득 열리는 일들은 누가 시키는 것인가? 스스로 그럴 뿐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럴 뿐이다’²⁰⁾라고 하였다. ‘갑자기 뛰어 오르고 문득 열린다’는 표현은 한 순간도 쉼 없이 움직이는 자연의 모든 변화 현상을 표현한 것이며, 그러한 변화가 현상 밖에 있는 신 같은 존재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담긴 기 자체의 힘에 의해 그런 것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앞서 장횡거가 만물의 변화를 필연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필연의 변화와 함께 기 안에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동성이 들어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또한 서경덕 기철학의 독창적 측면이라 하겠다.

서경덕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세계를 기로 이해하고 모든 변화를 기의 취산으로 설명한 철학자이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무질서가 아니라 그 때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질서정연한 변화였다. 따라서 기의 질서는 수의 질서로 환원될 수 있고, 수의 질서는 소리의 질서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서경덕의 기수론(氣數論)이며 성음론(聲音論)이다. 서경덕은 이 두 가지 모두 소강절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의 영향을 받았다. 『황극경세서』는 조선에 성리대전(性理大全) 통해 전해져 훈민정음 창제와 후대 음성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책이다. 소강절은 『황극경세서』 1권에서 12와 30을 기본으로 삼아 12단위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30개 모여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12개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30개 모여 한 세대가 되는 것처럼 우주의 시작부터 모든 변화를 역사적 시간론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경덕은 소강절의 생각을 이어받아 「황극경세수해(皇極經世數解)」를 씀으로써 역사적 시간론을 수학적 질서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소강절이 『황극경세서』 2권에서 만물과 소리의 관계를 논한 성음창화(聲音唱和)에 대한 설명을 이어받아 「성음해(聲音解)」를 씀으로써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기본으로 현실에서는 289,816,576개의 성음(聲音)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작업이 만물은 모두 각각의 타고난 기의 분수에 따른 운동을 통해 존재하며 그 기의 운동은 무질서가 아닌 기의 질서이고 그 기의 질서가 다시 수의 질서와 소리의 질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서경덕과 그 제자들의 이러한 학풍은 다른 한 편으로 당시 조선 사회의 주류였던 송시풍(宋

20) 같은 책, 「原理氣」, ‘倏爾躍 忽爾闢 孰使之乎 自能爾也 亦自不得不爾也’

詩風)의 유행을 밀어내고 당시풍(唐詩風)의 유행을 가져왔다. 송시풍은 송나라의 주류 학문이었던 성리학이 도덕과 관념성을 강조한 것과 같이 관념적이고 이지적인 시풍이다. 그러나 이를 밀어낸 당시풍은 시의 흥취와 함께 정감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이 강하며,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공감하고 그들의 질박한 삶에서 소재를 가져왔다. 서경덕의 제자 박순(朴淳)과 박순의 제자로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 불린 이달(李達) 등이 그러한 당시풍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경향은 성음을 강조함으로써 소리의 질서를 구현하려 했던 화담학파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성음은 낭송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며 낭송은 음률(音律)과 성률(聲律)에 따른 화해(和諧)의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 바로 여기에 적합한 것이 당시풍(唐詩風)이었던 것이며 그러한 성음의 미학은 기를 통해 만물이 어우러지는 물아일체(物我一體) 미학의 구현이었다. 특히 기의 취산을 통해 만물이 변하는 후천세계보다도 만물이 하나로 녹아 든 담일청허(湛一淸虛)한 태일(太一)의 선천 세계가 화담이 꿈꾼 대화해(大和諧)의 세상이었을 것이다.

서경덕의 학문은 화담학파의 또 다른 특징인 개방성, 자유성, 평등성으로 나타났다. 화담학파는 서경덕의 근거지가 개성이었기 때문에 문인록(文人錄)에 기록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 범위로 보면 서울과 고양, 양평, 개성 등의 경기북부와 일부 충청도에 걸쳐있다. 대표적인 제자 박순과 허엽이 각기 동인과 서인의 영수가 된 것도 학파의 결속이 느슨한 개방성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개방성은 다양한 학문의 수용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양명학의 수용이다. 양명학은 남언경(南彦經), 홍인우(洪仁祐), 허균(許筠) 등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남언경의 아들 남격(南格)이 최명길과 장유에게 양명학 가르침으로써 한국 양명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업동도(異業同道)를 내세운 양명학의 개방성, 자유성, 평등성이 화담학파의 개방성, 자유성, 평등성과 잘 어울린 결과라고 하겠다.

화담학파의 개방성, 자유성, 평등성은 제자들의 구성에도 잘 드러나 있다. 문인록에 기록된 24명의 제자와 기록 안 된 제자들까지 살펴보면 관직이 영의정에 이른 양반 계층부터 사회의 최하층이었던 노비까지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순, 허엽, 박민현처럼 고위직에 오른 양반 출신도 있고 이구(李球) 같은 왕족도 있으며, 이중호, 김근공, 박지화, 박순의 제자 이달(李達) 같은 서자 출신도 있다. 더구나 공주 등지에 살면서 학문과 교육에 힘썼던 서기(徐起)는 노비였고, 박순과 남언경의 제자로 중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 시모임을 만들어 좌주 역할을 했던 유희경(劉希慶)은 천민이었다. 이처럼 화담학파는 신분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서경덕, 박지화, 서기, 이지함 등이 모두 민중사회의 영웅 설화로 남은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양반 기득권의 삶과 거리가 있는 민중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V. 기철학의 특징과 똥

그렇다면 ‘똥분위화폐’ 프로젝트는 기철학에서 어떤 인문학적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첫째는 기의 순환적 사고로부터 얻는 교훈이다. 장자가 도 - 기 - 만물 - 기 - 도의 순환을 말했다면, 장횡거는 태허 - 만물 - 태허의 순환을 말했다고, 서경덕은 태허의 일기(一氣) - 만물 - 태허의 일기(一氣)를 말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은 기의 취산으로 이루어진다. 똥 또한 1절에서 글자의 구성을 살핀 것처럼 쌀(米)이 달라진 것(異)이 똥(糞)이며, 쌀(米)을 먹고 배설한 것이 똥(屎)이었다. 순환적 사고에서는 똥이든 쌀이든 모든 사물이 순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삶과 죽음도 변화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 사람이 쓰다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먹고 다시 그 물고기가 사람의 밥상에 올라오는 순환처럼 내 몸을 이룬 물이 죽음과 함께 빠져나가 풀을 적시고 그 풀을 소가 먹고 그 소를 다른 사람이 먹는 것도 모두 순환의 모습일 뿐이다.

환경론자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지렁이에게 주고 지렁이가 먹고 배설한 똥을 화분에 거름으로 쓰는 순환처럼 사람의 똥 또한 순환의 틀 속에 넣어 되살리는 작업은 존재론적 가치의 복원일 뿐이다. 사실 5-6십 년 전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식탁에 올라 온 먹거리를 먹고 배설하면 그 배설물을 재나 풀과 섞어 거름으로 만들고 그 거름으로 키워낸 먹거리가 다시 상에 올라오는 순환 과정을 당연히 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순환이 사물에 내재한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속성의 결과인 동시에 그러한 순환 변화를 이끌어낼 능동적인 힘 또한 모든 사물에 들어 있다고 본 서경덕의 생각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기에 내재한 능연(能然)과 필연(必然)의 이중적 속성이 바로 모든 사물의 존재 가치인 것이다.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만물 평등의 관점이다. 장자는 감각과 지식과 행위의 절대화를 모두 부정하고 꿈과 생시,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킴으로써 만물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끌어냈다. 이러한 생각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이다. 또한 장횡거도 만물이 기로 이루어져 있고 기의 취산을 통해 태허와 만물의 순환 과정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만물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서경덕은 그러한 생각의 완성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아갔다. 서경덕은 김안국(金安國)에게 부채를 선물 받고 화답해 보낸 시에서 ‘초가집 으리으리한 집 가리지 않고, 시원한 맑은 바람 곳곳마다 불어주네. 덕은 조화로워서 만물을 도움에 검은 것 흰 것 구분이 없고, 도는 위대하여 사람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 하네.’²¹⁾라고 함으로써 기로 이루어진 만물의 세계에서는 가난한 집이나 부자 집이나, 흰 것이나 검은 것이나 모두 같다고 보았다. 특히 서경덕과 그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신분적 구분이 분명하던 조선사회에서 서얼과 천민과 노비까지도 제자로 받아들였다.

21) 같은 책, 「謝金相國惠扇二首」 ‘不擇茅齋與廟堂。清風隨處解吹長。德和濟物兼玄白。道大從人聽翕張。’

똥본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똥을 더럽다고 보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실 사람들은 똥을 배설하기 전까지 자신의 몸 안에 담고 있었으면서도 밖으로 내 보내는 순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보기 시작한다. 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사고는 만물을 연관이 아니라 단절로 이해하는 기계론적인 사고이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똥의 종류도 다양하며 그 용도 또한 여러 가지였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처럼 개똥이 약이 되기도 했으며 실제 동의보감에는 개똥을 약으로 쓰는 용례들이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지렁이 똥은 화분의 비료로 쓰이고, 닭똥은 고추 농사의 중요한 거름이 되며, 유목민들이 기르는 야크의 똥 또한 귀한 연료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것일 뿐 몇십 년 전까지 대다수 농촌이 거름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유기농 농가 일부에서는 사람의 똥오줌을 먹거리 생산의 소중한 거름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만물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며 똥 또한 그런 용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철학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만물일체론이다. 장자는 만물을 상대화시킴으로써 만물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천하를 통틀어 하나의 氣일 뿐’이라고 하였다. 장황거 또한 현실의 다양한 사물들이 태허에서 다시 하나로 만난다고 봄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동포이고 만물이 내 벗’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경덕은 세상 만물이 태허의 근원 기인 일기(一氣)로 돌아간다는 생각과 함께 만물은 기의 질서 속에 있고 기의 질서는 수의 질서로 환원되며 수의 질서는 모든 성음이 어우러지는 것처럼 소리의 질서로 환원된다고 봄으로써 만물이 대자연의 하모니로 어우러지는 대화해(大和諧)의 세상을 꿈꿨다. 신분 차별 없는 대동세상이 현실의 대화해였던 것이다.

만물일체론은 똥본위 프로젝트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현대사회의 소득불균형과 인간 소외, 세대 갈등, 학점과 학위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분리와 투쟁이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통(感通)의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통해 상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예술을 통한 어우러짐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똥본위화폐에 기반한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배제가 아니라 환대에서 가능하며 남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식하는 공감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배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지적인 이해나 관념적 동의를 넘어서서 체험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References

- 『左傳』
『Zuo Zhuan』
『주역』
『The Book of Changes』
『도덕경』
『Tao Te Ching』
『장자』
『Chuang-tzu』
『管子』
『Guanzi』
『淮南子』
『The Huainanzi』
董仲舒, 『春秋繁露』
Dongzhongshu, 『Chunqiu Fanlu』
『황제내경』
『Huangdi neijing』
許慎, 『說文解字』
Xushen, 『Shuowenjiezi』
邵雍, 『皇極經世書(皇極經世書)』
Shao-Yong, 『huáng jí jīngshì shū』
張載, 『正蒙』
Zhāng Zài, 『Zhèng měng』
徐敬德, 『화담집』
Seok Kyung Deok, 『Hwadam-Jip』
- 김교빈, 박석준 외, (2003), 동양철학과 한의학, 서울, 아카넷.
Kim kyobin, Park suckjun, etc, (2003), Oriental Philosophy and Oriental Medicine, Seoul, Acanet.
장립문 주편, 김교빈 외 옮김, (1992), 『기의 철학』, 서울, 예문지
Main Editor Zhang Liwen, Translated Kim kyobin etc, (1992), Philosophy of Ki., Seoul, Yemunji.
劉長林, 조남호, 정우진, 김교빈, 성근제 옮김, (2009), 『강설 황제내경』, 청홍출판사,
Liu Changlin, Jo namho, etc, (2009), Kangsul Huangdi neijing, Seoul, published Chunghong.

하야시 하지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와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1996,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 서울, 보광재.

Hayashi Hajime, Translated Divison of Philosophy in Korean Philosophical and Thought Research Society and Oriental Medicine Science Research Society, Will Oriental Medicine Overthrow Western Science?, Seoul, Bokwangje.